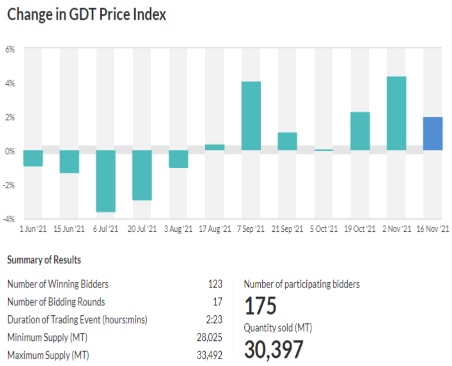
Global Dairy Report
글로벌 낙농뉴스
해외 정책동향 및 낙농뉴스

2021.11.18 | www.dairy.or.kr | 통계조사팀(044-330-2072)

[가격동향] GDT 유제품 시세 1.9% 오르며 상승세

- 서유럽 수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



지난 11월 16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2주전 대비 1.9% 오르며 3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지수 또한 1,335포인트로 전장대비 2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버터가 톤당 5,534달러(약 655만원)로 3.5%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체다치즈도 2.2% 오른 톤당 5,162달러(약 610만원)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전지분유도 톤당 3,987달러(약 471만원)로 1.9% 상승했고, 탈지분유도 톤당 3,676달러(약 435만원)로 1.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 체다치즈와 탈지분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뉴질랜드의 목초지 성장이 저하되며 원유생산량이 감소한데 반해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전년대비 강세를 보임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1월 12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도 2주전 대비 버터는 4.7%, 전지분유는 4.4%, 탈지분유도 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11월 16일 〉

[소비동향] 美, 연말 연휴 맞아 버터 소비 증가세

- 11월 둘째 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약 7,300만kg 판매 전망

연말 연휴를 맞아 미국 가정에서 홈베이킹이 시작되며 11월 둘째 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약 1억 6,100만 파운드(약 7,300만kg)의 버터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콘신주 낙농가 협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동안 버터 판매량 증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코로나19 이후 홈쿡과 홈베이킹에 따른 수요가 크게 늘면서 평년대비 판매량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인의 연간 버터 소비량은 평균 5.6파운드(약 2.5kg)에 그쳤으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소비량은 연간 6.3파운드(약 2.8kg)까지 증가하며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agweb.com, 11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